

세 가지 우연이 만든 ‘국민방위군’ 기사



신지영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한국전쟁당시 국민방위군이 입은 발진티푸스 피해와 관련한 증언이 생존 국민방위군을 통해 나왔다.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류기안(89)씨가 2020년 11월29일 자택에서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57년도에 직접 작성한 수기를 보여주며 피해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경인일보

어떤 기사는 우연에 우연이 더해져 만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잊힌 군인들, 국
민방위군’ 취재도 바로 그런 우연 덩어리
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5월,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우연’

“지영아, 좋은 취재거리가 있는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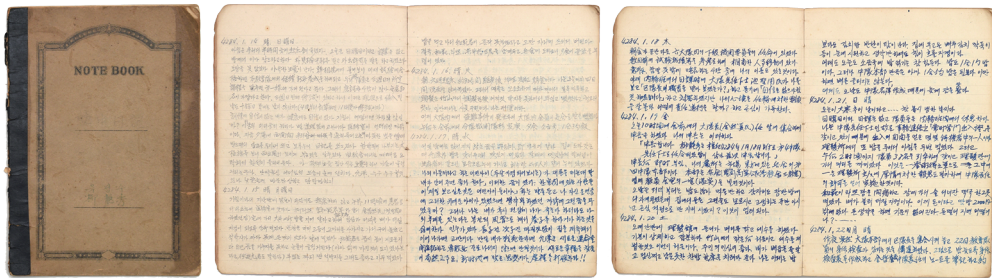
리 현대사를 자세히 알만한 기자가 누가 있을까?”

“선배 뭘 취재하려고 하시는거예요?”

“혹시 국민방위군이라고 들어봤어?”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6·25 당시에 징집
됐던 군인인 모양이야. (제보자)아버지가
국민방위군이었는데 국민방위군으로 징집
됐을 때 손수 쓰인 일기가 있대네”

“선배 그거 제가 할게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저랑 같이 취재해요”



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3일 촬영/경인일보

몇 번을 되뇌어도 낯선 이름 ‘국민방위군’이었습니다. 나름 문과 전공에 수능 선택과목도 ‘근현대사’를 택했던 저였는데도 ‘국민방위군’ 다섯 글자는 낯설었습니다. 포털에 접속해 검색해보니 ‘1950년 12월16일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되었던 군대’라는 짝막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검색하던 와중에 ‘하루에 주먹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우고 가마니로 이불을 삼는 참상 속에서, 아사자·동사자·병자가 1000여 명이나 발생하였다’라는 설명을 접했습니다. 첫 인상은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6·25 당시에 숨진 시민이 한 둘은 아니겠지만, 국가에서 징집한 병력이 적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검색에 검색을 거듭해도, 특히 기사 검색을 해봐도 ‘국민방위군’ 이야기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

은 새로운 사실. 바로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죠. 그렇게 ‘국민방위군의 일기’를 접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보자는 경기도 어느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이셨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이 다가오는데 아버지와 같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아, 그 속상함에 제보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1층 카페에서 제보자께서 꺼내주신 빛 바랜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쫓음이 분명한, 지금도 선명한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3월10일까지 76차례 작성된 ‘국민방위군 유정수의 일기’였습니다.

제보자가 주신 아버님의 일기를 서류 봉투에 넣고 그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창 밖에 어둑해질 무렵 텅 빈 식탁 위에 한 장씩 일기를 펼쳐 봤습니다. 70년 된 기록물을 대하는 기쁨은 잠시, 한자가 반 한글이 반인 원고에 당혹스러움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읽지”

입 밖으로 당황이 섞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름 국문과 줄임셈으로 한자가 섞인 고전도 꽤나 잘 읽어냈던 기억에 호기롭게 첫 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불과 한 줄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방위군의 일기는 꼬박 보름 동안 식탁 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순간 저를 구원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동되는 전자 한자사전. 일반 전자사전은 한자의 획을 입력해야 음과 뜻을 알 수 있지만, 앱 전자사전은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음과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밝은 조명을 가져다 놓고, 한 줄씩 사진을 찍어가며 공책에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보름 동안 몇 차례나 6·25 전쟁을 겪는 꿈을 꿔습니다. 매번 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거리에 저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고 저 멀리선 커다란 포성과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작정 뛰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총알에 맞거나 계속 달아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 일기를 보는 보름 동안엔 잊음이 부어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과 관심이 일기에만 가 있던 시간이었습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꿈까지 전쟁 꿈을 꾸게 된 것이겠죠. 저에게 온 첫 번째 우연은 이렇게 큰 인상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연’

첫 보도는 6월15일 이뤄졌습니다. 지면의 1면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넣고, 3면은 통째로 털어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고심하다 첫 기사의 제목을 ‘70년 만에 돌아온 선임하사의 일기’라고 붙였습니다. 1면은 국민방위군이 무엇인지 이번에 발굴한 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서술했고, 3면에는 보름 동안 해독한 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첫 기사가 나가던 날, ‘후련하다’는 마음보다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국민방위군이 무엇인지 모르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전달할 것인지가 막막했고, 또 일기 외에 무언가를 보도하고 싶는데 7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이제와서 취재한다는 게 녹록지 않다는 막막함이 더해졌습니다.

기사는 6월2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위 ‘기사를 털고’ 난 뒤에도 무언가 일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7월이 됐고, 8·9·10월을 넘기며 후속 보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어 올랐던 잊음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바쁜 일과로 점차 제 머리 속에서도 ‘국민방위군’이 흐릿해질 무렵 2가지 제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미 계절이 두 차례 바뀌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그 즈음 발간된 성공회대학교 이임하 교수의 저서를 모 보도를 통해 접하게

‘대책없는 징집’ 수많은 희생에 책임도 없었다

한국전쟁 70년 특별기획
잊힌 군인들 '국민방위군'

한국전쟁 70년. 6월의 역사는 치유되지 않은 민족의 슬픔이다. 그 슬픔의 가운데 죽어버린 수많은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민영웅'이다. 수십 만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민영웅을 이름에겐 쓰여야 할 곳과 붙자를 건넬분이 학살과 수감으로 골라 얻어 죽는 비극을 겪었다.

수십, 수백에 달하는 제노망이던 생명체들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민한 의자', '사'는 없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상해에서 경관들은 비 이사의 일인자로 있는 국민영웅의 일기를 발견했다. 고(故) 유정수씨가 남긴 일기에는 국외의 부름을 받고 전방에 뛰어발았지만,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한 국민영웅의 처절한 생활상 담겨 있다.

▶ 편집자 주. 원본이 사

자랑하는 내 아내와 아내와 동생들
게 이 기록을 드리오라'.

국민방위군 사건을 제2장에 올, 유정
1925~2010년의 일기는 어떻게 시작

한다. 수원군 양감면 요당리(현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태어난 그는 국민방
위군에 징집된 1950년 12월 23일부터 이
듬해 3월 10일까지 76차례 일기를 작성했

수십만 '민간인'으로 구성됐던 軍
극한 추위·배고픔 '지옥같은 고통'

다. 그중 내용 없이 날짜와 요일만 명기
한 게 2차례고 가장 긴 일기는 759자. 가
장 짧은 일기는 단 32번 기록됐다.

국한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이동하는
과정들 기록한 일기들은 대체로 짧고,
교육대에 도착한 뒤 일기와 성경을 담은
일기는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정집령에 따라 수원에 집합한 그는 대

이 시기는 충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

[illegible]

한글전성 당시 국가의 흐름에 응해 국민방위군으로 전향해 뛰어들고 그 유훈수배가 남긴 일로
복사 촬영한, [김남석 작가 artmate@kkyeongin.com]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건을 다"면서 "해당 급작스런 이동작전현황으로
조직원 전진·퇴배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의와 인사회의에위원하는 '당시정
태는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대대적 동

경향일보 2022.07.06 종합 2022년 4월 14일 월요일 3

청도까지 ‘죽음의 행군’… 가족 떠올리며 ‘死地서 버텼다’

한국의정 70년 특별기획
있던 군인들 '국민방위군'
▶ 1948년 유엔군에 참가한 '그날의 기억'

[illegible][illegible]

며칠 뒤, 제 메일로 흥미로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목은 ‘경인일보 발진티푸스 보도 관련’. 내용은 짧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6·25 당시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사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발진티푸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습니다”.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천의 어느 농협의 지점장께서 보내신 제보였습니다. 제보자의 아버지 류기안(89)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류기안 옹은 6·25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됐던 살아 있는 증인이자 발진티푸스 병의 참상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고령으로 다소 말이 어눌하기는 했지만 그의 증언은 제가 읽었던 국민방위군의 일기와 겹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류웅 역시 국민방위군 징집 당시의 경험을 수기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류웅과 자세한 것은 감사하게도 이 수기를 경인일보를 통

해 사회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지역사 연구에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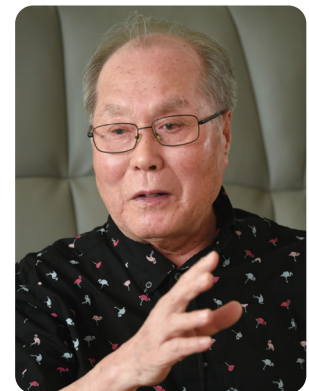
‘세 번째 우연은 현재 진행형’

류 옹의 일기와 제가 처음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준 국민방위군의 일기는 모두 각각 인천시와 경기도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수기들은 앞으로 우리 후손이 ‘국민방위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연구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취재에서 ‘국민방위군’을 역사에 기록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사를 도와주셨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한 경기도의원은 기사를 접하고 지역 사인 경기도사에 국민방위군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러 역사학자께서 관련 학회와 연결해주시며 학회 발언대에 제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전쟁사의 다른 페이지와 달리 유독 ‘국민방위군’ 만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살아 있는 역사가 아니라 화석이 된 무미건조한 줄글로만 남게 됩니다. 잊음이 부어가며 읽었던 국민방위군의 역사, 그 일기를 읽으며 생생하게 경험했던 비극을 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또 후대에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2020년 6월18일 이창식(91) 전 경인일보 편집국장이 한국전쟁 당시의 자신 사진을 보여주며 국민방위군 사건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경인일보

다. 정 추기경이 가톨릭에 귀의한 배경이 바로 ‘국민방위군’ 징집입니다. 한 겨울 국민방위군으로 남쪽으로 향하던 정 추기경은 남양주의 어느 강을 건너던 중 발 밑의 얼음이 깨지며 숨진 동료들을 보며 인생 무상을 느꼈고 이에 종교에 투신하게 됩니다.

정 추기경의 사례에서 보듯 당대의 인물들에겐 국민방위군 사건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음에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낯선 사건일 뿐입니다. 기사 이후에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 역사학자, 정책 입안자 등 여러 귀인들께서 국민방위군 기록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연은 제가 취재 중 만난 바로 이 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방위군을 잊지 않을 때 세 번째 우연까지 합쳐져 국민방위군 기사가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